‘청년포교’ 일념으로 전국 군법당 순례


유선재 단장이 제대하는 군종병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대불련 총동문회 군포교지원단 10주년 행사는 그동안 전국각지에서 활동했던 지원단 법사들의 원력을 모아 다시 새로운 발원을 하는 계기가 됐다.



부부법회 회원들과 군포교에 나선 유단장 부부.



군포교지원단 10주년 행사서 법사들이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3년 호국충성사 낙성식 모습.

‘유선재 단장’

B1면에서 계속

이런 와중에도 군포교지원단은 법당의 영상 및 음향시설, 냉난방 기구, 방석, 법구, 탱화 장엄 등 비품을 지원하며 군불교 발전에 기여했다.

건립불사 과정에서 보다 많은 이들의 동참이 이어졌고, 사단법인 대불에 장학금이 답지, 1년에 3명의 불자 대학생에게 장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 단장은 “올해 봉축행사 제등행렬 때 한 건장한 청년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며 “가만히 보니 법회를 나가는 부대 출신 청년이었다. 반갑게 와서 당시에 법문을 듣고 제대 후에도 사찰에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하며 웃었다.

유 단장은 “조계사에서 우연히 들은 법문 한 구절이 저를 포교의 길로 이끌었듯, 군법당에서 군장병들에게 하는 법문도 이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백명의 장병들 중에 한 명이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불자로서 수행정진하는 삶을 살게 한다면 그것만큼 보람찬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단장은 그런 의미에서 군포교지원단에서는 군종병을 대상으로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때로는 법사들을 대신해 법회 집전을 보고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이 제대시에 조금이나마 불교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들에게 주는 이른바 축원지갑 등은 유 단장이 협찬을 받아 지급한다.

유 단장은 이어 그만큼 보람찬 일이기에 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불교의 희망이 사그라드는 작금의 현실에서 군포교와 대학포교만이 불교의 미래라고 힘주어 말했다.

“부처님 불사가 새로운 인연을 만듭니다. 군장병들이 건강하게 전역을 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덜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대학생 청년 포교를 위한 범불교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인재양성 불사 등 세 가지가 융합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동참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미래불교 절실한 과제 ‘군포교’

“군장병 포교는 한국불교 미래불교에 절실한 과제이고 젊은 불자 육성에 씨앗이 되는 활동이니 종단 범불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 단장은 군포교 현장에서 탈종교 현상과 청년층의 불교에 대한 무관심 현상에서 청년 불교의 육성은 중요함을 역설했다.

“좀 더 군포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몇까지 제언이 있습니다. 먼저 사부대중들의 군포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유기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기독교계서 선교의 16개 단체가 있듯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군포교 단체에 대한 지원 체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 청년 대학생에 대한 인재불사가 필요합니다.”

유 단장은 먼저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를 중심으로 군포교지원단체 협의회를 재가동해야 함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3년 간 열리지 않고 있다.

유 단장은 협의회를 통해 가동이 되는 법당과 가동되지 않는 법당, 법사들의 법회 현황 등을 서로 점검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활동에 어려운 점에 대한 해소도 필요하다. 유 단장은 “대부분의 법사들이 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간식 등을 마련하고 있다.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여기에 아직도 법사가 없어 법회를 열지 못하는 군법당이 많이 있다”며 “시설과 비품을 위해서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력과 열정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성 · 대중 · 도시불교로

1970년 조계사 학생회서 감화
중앙대 대불련 이어 동문활동
신해행증의 수행차원서 포교

27년 부부법회, 군포교 원동력
기수 모임 이끌고 군법회도
“수처작주로 군포교에 최선을”

매년 군종병 공로패 전달
전역 후 찾아와 인사도
“군 법문이 불심 발현 영향”

부부법회 불심, 군포교 이어져

그렇다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유 단장이 10년 넘게 군포교 활동을 해올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유 단장은 가정에서의 든든한 지원을 들었다. 유 단장은 서울 목동 법안정사서 부부불자회 창립멤버로 2013년 부부불자회장을 맡는 등 27년간 꾸준히 정진해오고 있다.

“제 삶의 모토는 언제 어디서나 주인 됨의 자세로 일관하는 수처작주 입처개진과 상구보리 하화중생, 그리고 아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해 낼 때 진정한 불자가 된다는 신해행증의 체계대로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유 단장은 “지성불교로서 대중불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속에 부부가 함께 사찰에 가야한다는 것으로 이어졌다”며 “그때 가정 속에 불교신행을 가져왔고, 이것이 포교의 힘이 된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초청법사를 모시고 부부법회를 하고 있다. 월 1회 산행법회 등으로 꾸준히 모임을 가진 부부법회의 도반들은 군포교에서의 도반이 되기도 했다.

“가정을 순례하면서 법회를 열며 불교는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봉사활동도 조직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군포교까지 함께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군법당에 가면 오히려 신심이 더 난다고 하십니다. 군포교는 군장병들에게 불자의 씨앗을 심는 일이기도 하지만 봉사하는 이들에게도 불자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유 단장은 13년째 개인사업인 건설업에서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 모든 일이 상대를 이롭게 하고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한다는 생각이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향을 사르고 참회진언을 외웁니다. 신심을 지키는 기둥입니다. 그 다음은 군포교가 수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나섭니다. 결국 우리들 삶은 신해행증입니다.”

열악한 군포교 현장에서 묵묵히 전법의 길을 걸어온 군포교지원단, 그리고 유선재 단장. 이들이 간절히 발원한 것은 끝까지도 전법포교의 활성화였다. 열정 하나로 십 수 년간 전방 오지에서 포교활동을 이어온 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